

# 믿지 않는 이와 결혼이 '끔찍한' 이유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청교도인들이 그린 '부부의 세계'**

**'사랑'은 '결혼'과 이혼했는가?**

**크리스천의 결혼은 달라야 한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한 신 것**

**크리스천의 결혼생활**  
**조엘 비키, 제임스 라벨 | 정총하 역 CH북스 | 364쪽 |**

결혼생활을 주제로 글을 쓴 저자가 적지 않다. 존 맥아더, 존 파이퍼, 마틴 로이드 존스, 팀 켈러, 폴 트립, 크리스토퍼 애쉬 등 유명한 저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결혼에 관한 풍부한 지혜와 교훈을 이미 제시했다.

그러면 조엘 비키와 제임스 라벨이 쓴 <크리스천의 결혼생활>이 독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하거나 새로운 유익은 무엇일까?

이 책의 추천사를 남긴 R.C. 스프로울은 이 책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관점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한 설교자 스티븐 로슨은 이 책이 "청교도들의 지혜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평가했다.

휘튼대학교회 명예 담임목사 켄트 휴즈 역시 이 책의 저자 조엘 비키와 제임스 라벨이 "29명의 위대한 청교도들의 저작물을 탐사하여 그들의 지혜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배열하고 연구 문제를 덧붙임으로써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준다"고 칭찬했다. '청교도'가 키워드다.



조엘 비키는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부흥과개혁사, 2015)>, <개혁신의 청교도 영성(부흥과개혁사, 2009)> 등 청교도 관련 다수의 저서를 쓴 목사이자 교수이다(퓨리탄리폼드 신학교).

제임스 라벨은 2016년 청교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이프코드 장로교회 목사로 일하면서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전문 분야가 '청교도'라는 말이다.

특별히 조엘 비키가 쓴 모든 책은 주제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청교도의 지혜를 축출하여 진액만 제공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쓴 것 같다.

그렇다고 청교도 신학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지는 않는다. 이 책의 마지막에 밝힌 것처럼, 청교도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깊이 열정적으로 묵상하여 풍성한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현대인에게 '결혼'은 일종의 계약 관계와 같다. 조건에 맞춰 일생을 사회적 위치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계약.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랑'은 결혼과 이혼한 개념이 되어버렸고, '책임'과 '헌신'은 거의 사별한 개념이 되었

다. 물론 모든 결혼 관계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미디어가 그려내는 결혼은 성적, 도덕적 정절과 함께 배우자에게 전인을 맡기고 헌신하는 관계에서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감정적인 사랑이 남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묘사된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결혼생활도 그래야 하는가? 크리스천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결혼은 현실이다. 사랑만 으론 살 수 없다'고 가장 먼저 조언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적어도 청교도인들은 결혼에 관하여 가장 먼저 '결혼은 존귀한 것'이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결혼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란 이유면 충분하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진실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제정하시고 주재하셨기 때문에 헌신적인 사랑을 신실하게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결혼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 지금까지 결혼 안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죄에서 놓임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크리스천은 지금도 결혼을 통해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은택을 풍성히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는 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결혼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그분이 약속하신 은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청교도인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 남자와 여자가 합당한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도 청교도인들은 간절히 외모나 재력 등 풍기는 매력보다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성숙한 신앙과 삶을 보게 해달라고 구한다.

나아가 혹시 잘못된 매력에 빠져 감정적으로 끌리게 되더라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관계 속에서 은택을 풍성히 누리려면 같은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결혼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추구할 능력도 없는 이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소망 없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비키와 라벨은 이 책의 마지막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심도 있게 다뤘다. 청교도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남편의 권위를 말할 때, 그것이 사랑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직 그때만 발휘하는 권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또한 아내의 역할인 돕는 배필과 존경을 말할 때, 그것이 사랑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남편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도와주려는 사랑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매우 흥미롭고 탁월하게 요약하고 정리하여 설명한다.

페미니즘의 잘못된 영향 아래 남편의 권위가 올바르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청교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아내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

은 권위 하나 없이 사랑만 남은 남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는 남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해준다.

결혼 생활은 부부의 개인적인 일로 취급하는,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적 영역이라고 보는 세속적 시각을 거슬러, 청교도인들은 모든 크리스천 부부에게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고귀한 가치를 지녔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한다.

결혼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랑은 권위, 책임, 헌신, 존경, 존중, 섬김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이 말하는 부부의 세계엔 소망이 없다.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현실'은 씁쓸하고 암울하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말하는 '결혼의 현실'은 달라야 한다.

크리스천의 결혼생활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연약하고 모나고 흠 있는 모습이라도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도 결혼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을 믿고 그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은택을 간절히 소망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세상이 알기 원하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크리스천의 결혼생활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교회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리스도와,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깊이 사랑하는 교회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고 갈망하게 한다.

이 책을 통해 청교도인들과 함께 이 아름답고 고귀한 결혼을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천이 되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풍성한 은택이 약속되어 있다.

조정희  
유평교회 담임목사

## 맥스 루케이드 목사 "인종차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최근 맥스 루케이드(Max Lucado, 사진) 목사의 '인종차별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된 답변'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칼럼에서 루케이드 목사는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비극적인 죽음은 지속적인 폭동을 비롯한 인종차별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래된 죄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된 죄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를 창조하시오"(창 1:26-27)

루케이드 목사는 "이 창세기 말씀에 포함된 것은 놀라운 약속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면서 "자신만의 망상을 제외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혜·사랑·은혜·친절·영원에 대한 갈망 등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했지만, 이를 파괴하지는 않았다. 우리의 도덕적 순결이 오염된 것이다. 우리의 이성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오염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뜻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철회하거나 계획을 변경하셨다고 생각하

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심리학이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도록 할 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잡지에서 당신이 늘씬하고, 근육이 많고, 피부결이 좋을 때, 좋은 향수를 사용할 때 사랑받는다"고 제안할 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영화에서 체력, 지능 등이 높아질 때마다 당신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암시할 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출석, 신앙 훈련, 영성에 따라 당신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케이드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은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어졌기 때문에 당신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때 진정 만족할 것이다. 다윗 왕은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오리니 꺾 때에 주의 형상으

로 만족하리이다' 고백한다"고 말했다.

루케이드 목사는 "모든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이 진리를 믿기로 선택한다면, 얼마나 슬픔이 사라지겠는가? 당신은 이 진리를 마음에 품을 것인가? 부모님이 당신을 임신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지으셨다. 당신의 존재가 지상에 알려지기 전, 이미 하늘에서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유전이나 진화의 무작위적 우연으로 생긴 존재가 아니다. 당신의 존재의 가치는 몸무게, 팔로워 수, 자동차, 옷가지의 수에 따라 정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다이아몬드, 장미, 보석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 진리로 당신을 바라보겠는가? 또 이 진리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겠는가? 당신 앞에 보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창

조되었으며, 존중받고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 당신은 어떠한 시민이 되겠는가? 어떤 친절을 베풀겠는가? 만약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면, 인종차별은 창궐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이 여성을 학대하겠는가? 남성이 여성 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있다고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다. 상사가 직원을 함부로 대하겠는가? 그 직원 안에 거룩한 불꽃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다. 사회가 빈곤층, 정신병자, 수감자나 난민을 실패자라고 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쁜 뜻이 없으시다"고 말했다.

루케이드 목사는 "부모와 조부모는 이러한 진리를 이해했다. 딸 제나가 첫 손녀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한다. 제나가 첫 손녀인 로지를 낳기 전 오래 전부터 난 로지를 사랑

했다. 그녀를 본 적은 없지만 사랑했다. 손녀는 내 사랑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내게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난 이미 그녀를 사랑했다. 난 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일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녀가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당신은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존중할 수 있나? 폭력과 유혈을 낳는 인종차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강의가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만이 유일한 계획이다. 지구상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라"고 당부했다.